



금융위원회

보도참고자료

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배포시	배포 일시	2022. 9. 6.(화) 16:00
-------	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	책임자	과 장 이석란 (02-2100-2860)
		담당자	사무관 김준수 (02-2100-2865)
	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	책임자	국 장 이창운 (02-3145-8300)
		담당자	팀 장 류영호 (02-3145-8001)

태풍 힌남노 피해 금융지원방안

- ◇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「**종합금융지원센터**」(**☎1332**)를 통해 신속한 상담과 지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◇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가계는 은행권 등에서 **긴급생활안정자금**을 대출 받거나, **기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**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- 보험이나 카드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, **보험금 신속지급 · 보험료 납입유예, 카드결제대금 납입유예**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- 채무를 연체하게 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**무이자 상환유예 등 특별채무조정**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◇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· 소상공인은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등을 통해 **긴급경영안정자금**을 대출받거나, **기존 대출 · 보증에 대한 만기연장**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1 추진 배경

- 행정안전부는 태풍 힌남노 상륙에 따라 9.4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**3단계**로 격상하고, 위기경보 수준을 “**심각**” 단계로 상향 발령하였습니다.
- 금융당국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신속하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.

2 태풍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 설치 (9.5 15:00 가동)

-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· 금융유관기관 · 업권별 협회 등 **쑤 금융권**으로 구성된 「**태풍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**」를 설치하였습니다.
 - 태풍피해 주민들과 기업들의 피해상황 및 금융애로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상담과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며,
 - 피해상황이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.
- 금융감독원 내의 「중소기업금융애로상담센터」를 한시적으로 확대하여, 각 지원(11개 支院*)을 거점으로 ‘**피해현장 전담지원반**’을 구성하였습니다.
 - * 부산·울산, 경남, 제주, 대구·경북, 광주·전남, 대전·충남, 인천, 전북, 강원, 충북, 강릉
 - 금융권과 공동으로 맞춤형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.
- 금융업권별 협회는 ‘**태풍피해 지원센터**’를 설치하여 업권 내에서 필요한 지원사항을 상담 · 안내하고 금융회사와 연계를 담당합니다.
- 각 금융회사는 헌남노 피해지역 내 각 지점에서 “**피해기업 전담창구**”를 운영하여 보다 신속한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.

<태풍 대비 종합금융지원 체계>



3 지원 내용

가. 태풍 피해 가게 금융지원

①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

- 금융권*은 태풍 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합니다.

*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(금리, 한도 등)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
☞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·중앙회로 문의(5p 기관별 연락처 참조)

< 상호금융업권(예시) >

- 농협 : 피해 농업인 조합원 대상 무이자 긴급생활자금(세대당 최대 1천만원, 무이자)
- 수협 : 피해 입증 고객 대상 긴급생계자금(인당 최대 2천만원) 대출 지원

② 기존 대출 만기연장, 상환유예 등 지원

- 금융권*(은행, 저축은행, 보험사, 카드사)은 태풍 피해 가게에 대해 일정기간 (6개월~1년) 대출원리금 만기연장, 상환유예, 분할상환 등을 지원합니다.

* 만기연장·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
☞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·중앙회로 문의(5p 기관별 연락처 참조)

③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

- 생명보험·손해보험 업권은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,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합니다.

※ 재해피해확인서 등 발급시 손해조사 완료전 추정 보험금의 50% 범위 내 조기지급

-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,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신속 지급합니다*(24시간 이내 지급).

* 보험금 지급 소요기일, 보험료 납입의무 유예기간 등 구체적 지원조건은 개별 보험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

☞ 상세 내용은 해당 보험사 또는 생보협회·손보협회로 문의(5p 기관별 연락처 참조)

4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

- 카드사들은 태풍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합니다.
-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(신한), 태풍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감면(현대), 연체금액 추심유예(롯데, 우리) 등*도 추가로 지원합니다.
- * 결제대금 청구유예 기간, 연체료 면제여부 등 구체적인 지원조건은 개별 카드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
- ☞ 상세 내용은 해당 카드사 또는 여신금융협회로 문의(5p 기관별 연락처 참조)

5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

- 태풍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,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(최대 1년) 및 채무감면 우대(70% 고정*)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- * 장기연체(예: 1년 이상 연체)로 금융회사가 상각한 채무에 한하여 감면혜택 제공

나. 태풍 피해 소상공인·중소기업 금융지원

1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

- 정책금융기관(산은·기은) 및 은행권·상호금융권* 등은 피해기업·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·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.
- * ① 은행·상호금융 이외의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경영안정 지원상품 출시 가능
②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(금리, 한도 등)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
- ☞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·중앙회로 문의(5p 기관별 연락처 참조)
-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·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.

<주요 지원프로그램(예시)>

- 산은·기은 : 피해기업 대상 긴급운영자금 지원(기은 : 최대 3억, 산은 : 기업당 한도이내)
- 신보 : 특례보증 지원(보증비율 85→90%, 보증료율 0.5% 고정)

2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지원

- 정책금융기관(산은·수은·기은) 및 은행권·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·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, 상환유예 등을 지원*합니다.

* 만기연장·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

☞ 상세 내용은 **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·중앙회로 문의(5p 기관별 연락처 참조)**

-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·소상공인이 이용중인 보증상품에 대하여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합니다.

4 태풍 피해 상담창구 운영

- 금감원 내 종합금융지원센터(☎1332), 금융업권협회,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, 신청절차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
<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상담창구 >

산업은행	☎ 1588-1500	은행연합회	☎ 02-3705-5000
기업은행	☎ 1566-2566	생명보험협회	☎ 02-2262-6600
수출입은행	☎ 02-3779-6276	손해보험협회	☎ 02-3702-8500
신용보증기금	☎ 1588-6565	농협중앙회	☎ 1661-2100
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	☎ 02-2080-6607	수협중앙회	☎ 1588-1515
신용회복위원회	☎ 1600-5500	신협중앙회	☎ 1566-6000
저축은행중앙회	☎ 02-3978-600	여신금융협회	☎ 02-2011-0700

5 유의 사항

- ①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*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하여야 합니다.

* [발급방법] ① 관할 기초지자체 방문(주민센터, 읍·면사무소 등) → 피해사실확인서
서식작성 및 접수 → 지자체 확인서 발급

② 온라인 접수(국민재난안전포털 www.safekorea.go.kr) → 지자체 확인서 발급

- ②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
상이할 수 있습니다.

○ 먼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내용을 문의하신 후
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
- ③ 최근 정부,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
유도하거나 유알엘(URL)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(스팸) 문자가
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○ 정부나 금융회사에서 먼저 전화나 문자, 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
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습니다.

○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
거절하고,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
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합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	책임자	과 장	이석란	(02-2100-2860)
		담당자	사무관	김준수	(02-2100-2865)
<공동>	금융위원회 은행과	책임자	과 장	김연준	(02-2100-2950)
		담당자	사무관	이정민	(02-2100-2982)
<공동>	금융위원회 보험과	책임자	과 장	이동엽	(02-2100-2960)
		담당자	사무관	김경찬	(02-2100-2964)
<공동>	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	책임자	과 장	이진수	(02-2100-2990)
		담당자	사무관	박준상	(02-2100-2992)
<공동>	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	책임자	과 장	정선인	(02-2100-2610)
		담당자	사무관	서지은	(02-2100-2611)
<공동>	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	책임자	국 장	이창운	(02-3145-8300)
		담당자	팀 장	류영호	(02-3145-8001)
<공동>	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	책임자	국 장	김준환	(02-3145-8020)
		담당자	팀 장	양유형	(02-3145-8022)
<공동>	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	책임자	국 장	박지선	(02-3145-7460)
		담당자	팀 장	이권홍	(02-3145-7450)
<공동>	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	책임자	국 장	이종오	(02-3145-7550)
		담당자	팀 장	김충진	(02-3145-7447)
<공동>	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	책임자	국 장	이길성	(02-3145-6770)
		담당자	팀 장	오우철	(02-3145-6772)
<공동>	금융감독원 상호금융국	책임자	국 장	박현섭	(02-3145-8070)
		담당자	팀 장	김도희	(02-3145-8072)
<공동>	금융감독원 포용금융실	책임자	실 장	김시일	(02-3145-8410)
		담당자	팀 장	이승훈	(02-3145-8409)
<공동>	금융감독원 금융민원총괄국	책임자	국 장	서정보	(02-3145-5530)
		담당자	팀 장	이준교	(02-3145-5510)
<공동>	은행연합회	책임자	상 무	김평섭	(02-3705-5050)
		담당자	부 장	김경민	(02-3705-5704)
<공동>	생명보험협회	책임자	본부장	김홍중	(02-2262-6628)
		담당자	부 장	조성준	(02-2262-6689)
<공동>	손해보험협회	책임자	본부장	서영중	(02-3702-8580)
		담당자	부 장	권병근	(02-3702-8530)
<공동>	저축은행중앙회	책임자	상 무	최병주	(02-397-8602)
		담당자	부 장	성용욱	(02-397-8640)
<공동>	여신금융협회	책임자	본부장	배종균	(02-2011-0602)
		담당자	부 장	조운서	(02-2011-0740)